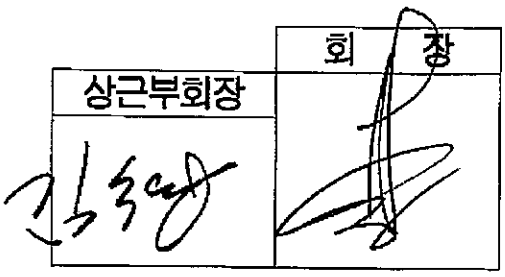

201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6. 2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6. 24(월) 14:00 ~ 16:05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20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2명) : 이동한, 고치환, 김재익, 이연봉, 김순효, 양광호, 김군택, 고두승, 강규진, 양은정, 김금자, 김호성

나. 위임(8명) : 양은심, 임태봉, 강동화, 박정해, 이백만, 고은택, 최영열, 송옥희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고맙다고 하다. 우리 협의회 회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을 맞고 있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상언 관장이 신문지면을 통해 우리 협의회의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그 내용이 협의회 회원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 협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사자를 불러 그 진위를 듣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하자고 참석 이사님들의 결의를 통해 오늘 이사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강규진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회원자격 상실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1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1호 의안 회원자격 상실안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방법에 대한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지금 현재 이상언 회장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들인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이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 의　　장 : 이상언 회장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들을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양은정 이사** : 같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다.

- **김금자 이사** : 양은정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양광호 이사** : 지금 이사회에 이상언 회장을 출석시키는 이유가 신문지면을 통해 밝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바란다라는 기고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신상 문제에 대한 사항일 수 있어서 이상언 회장만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군택 이사**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신문기고와 그 외에 제주시청에 공문으로 제출한 협의회의 복지관 수탁신청서 제출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때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인데 사전에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에게 묻다.

- **조성태 관장** :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다.

- 의　　장 : 일단 회의 진행은 이상언 회장만을 참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은 이사회가 끝난 후 별도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제청하다.

- 의　　장 : 사무처에 이상언 회장을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사무처에 지시하고 회의장 자리를 정돈하도록 지시하다.

○ 이상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 참석하다.

이하 질의·답변내용은 개인 및 일부 단체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합니다.

생각하시고 여기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의견들을 참고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다.

- 의　　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은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다. 다음 이사회 일정을 정하자고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의 답변을 확인한 이후인 7월 8일 오후 2시가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제창하다.

- 의　　장 : 다음 이사회 일정을 7월 8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선언하다.

- 의　　장 : 오늘 참석한 복지관장들에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며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한사람씩 발언할 수 있도록 하다.

- 안원식 관장 :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행정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어지는 부분은 없었고 이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사항에 대해 협의 조정이라든지 대변적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다.

- 의　　장 : 진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찾아왔다면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했을텐데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로 건의가 들어온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김봉한 관장 :**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와의 관계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멀어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돌출행동이 아니라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의 중앙회의 참석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함께하는 사업들에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만 빠져나가는 등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이러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송옥희 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이 협의회 이사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언 회장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현 이상언 회장을 이사로 참여시키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다.

- **조영숙 관장 :** 장시간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께 고맙다고 하며 어찌되었든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기대한다고 하다.

- **의　　장 :**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한가족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한 가족끼리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발전을 해나간다면 그 기회를 빌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들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들과 또한 몸담고 있는 기관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겠다고 하다.

8. 폐　　회

- **의　　장 :**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군택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6:05)

2013년　6월　24일

회 장 : 이 동 한

이 사 : 고 치 환　　김 재 익　　이 연 봉

김 순 효　　양 광 효　　김 군 태

고 두 흥　　강 규 진　　양 은 정

김 금 자　　김 호 성

확인자 : 김 수 완

기 록 : 김 성 권